

영농기 필요인력 46만명...전남도 수급 총력

종합상황실·중개센터 풀가동

농가-구직자 플랫폼 맞춤형

외국인 근로자 등 전방위 대응

전남도가 46만여명에 이르는 봄철 영농기 필요인력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30일 “농촌인력수급 지원계획을 세워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도내 중개센터 영농작업반을 모두 가동하는 등 영농기 인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대상 농작업은 양파·마늘 수확, 고추·고구마 모종 옮겨심기(정식), 배 숙아내기(적과)와 봉지 씌우기 등이다. 이들 작물의 전남 재배 면적은 총 1만7,041ha로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은 약 46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전남도는 현재 ‘봄철 농번기 인력지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도-시군-농협 간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상황실은 농작업 진행과 인력수급 현황, 인건비 상승 동향을 점검하고 시군 인력 운영을 조정한다.

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4곳에서 37곳으로 확대하고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농작업반을 3,500명으로 확대해 인력중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청년·은퇴자 등 도시지역 유휴인력을 확보해 농촌일지리를 알선한다는 계획이다.

인접 시군 간 농작업반을 상호교류 투입해 중개 범위도 확대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이뤄지는 무료 중개, 작업반 수송, 간식비·상해보험료 지원 등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농업분야 구직자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검색해 일지리를 신청할 수 있고, 실시간 문자 정보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은 중개플랫폼에서 근로 지역, 농작업 종류, 임금 수준, 근로 조건 등 정보를 등록하거나,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신청하면 필요인력을 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기간 입국이 제한돼 크게 줄었던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도 4월부터 역대 최대로 입국해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말 19개 시군 총 640농가에 전년 706명보다 3.1배 많은 2,274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해남 102명, 담양 49명, 나주 46명 입국을 시작으로 농업분야에 근로할 1,000여명이 입국 준비 중이다.

하루 단위 단기 고용 인력이 필요한 중소농가 지원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첫 시행하는 나주·고흥도 외국인 근로자가 4월 말 입국한다.

외국인 유학생도 4월 중 도와 시군·도내 대학 간 ‘외국인 유학생 농촌인력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통해 농가 인력지원에 나선다.

전남도는 대학&농촌 봉사활동 일촌 맷기를 운영하는 등 농번기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공무원·공공기관 일손 돕기, 대학생·군부대 자원봉사활동 참여 극대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매년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수급이 어려워진다고 인건비는 상승해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활용, 농작업반과 도시 유휴인력을 지속 확보해 인력 수급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시, 50+ 장년층 일자리

규모 늘리고 인건비도 상향

광주시가 장년세대가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생애전환기 장년세대(만 45~64세) 일자리 사업인 ‘빛고을 50+일자리’ 사업에 13억5,200만원을 투입하고 참여자 360명을 모집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빛고을 50+일자리’는 장년세대가 은퇴 후에도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시설, 전통시장, 마을,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인생 2막의 기회를 얻고, 매달 52시간 기준(원칙)으로 월 60만~65만원의 활동비를 지원 받는다.

활동 기간은 사업에 따라 최소 5개월에서 9개월 정도다.

특히 올해는 광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연계한 ▲맘편한 광주아이 키움 지원단 ▲50+문화시설 지원단 ▲꽃샘도시 광주 온라인 홍보 지원단 ▲전통시장 안전 서포터즈 ▲50+안전산행 지원단 등 총 9개 사업단이 3~4월 참여자를 모집하고, 5월 초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년세대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인원을 당초 160명에서 360명으로 크게 확대했고 인건비도 광주형 생활임금으로 상향(9000→1만1,930원/시간당) 조정했다.

광주시는 2019년 처음으로 빛고을 50+일자를 시행한 이후 해마다 시장 정책방향에 맞는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해 규모를 늘려왔다. 지난 4년간 1,252명의 장년층이 빛고을50+일자리를 통해 인생 전환기를 준비하고 사회공헌활동의 기회를 가졌다.

문의는 ‘빛고을50+센터’ (062-228-5050)로 하면 된다.

/김용현 기자

근린공원 관리실태 특정감사

시, 내달 3~28일까지...94곳

광주시가 4월 3일부터 28일까지 공원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근린공원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시 감사위원회, 해당 자치구, 시민감사관 등이 합동으로 근린공원 127곳(1,518만㎡) 중 조성이 완료된 94곳(554만㎡)의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운동기구 등 공원시설물 파손 및 관리 적정성 여부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합 여부 ▲산책로 바닥 훼손 여부 ▲불법 적치물 등 무단 점용 여부 ▲안전사고 발생 및 야간 운영 관리실태 등이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원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가 예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기후위기·물 문제 토론회

광주시의회는 30일 오후 예정위 회의실에서 ‘기후위기와 물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무안공항 해외관광객 50명 첫 무사증 입국

나트랑 전세기 환영행사

베트남서 1만명 방문 기대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해외관광객이 처음으로 무사증 입국했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30일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첫 입국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전세기 입항은 지난달 25일 김영록 전남

지사가 베트남에서 열린 전남관광 설명회에 참석해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남 여행상품 운용 업무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보성 녹차밭, 순천만 국가정원, 영암 왕인 박사 유적지 등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4박 5일간 둘러볼 예정이다.

이날 입국한 50여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베트남 관광객 1만여명이 전남을 찾을 전망이다.

이번 베트남 관광객은 지난 15일 시행된 무

사증입국 허가제도 시행 이후 첫 외국인 관광객이다.

무사증 입국제도는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5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 15일 동안 비자 없이 전남·광주·전북·제주를 여행할 수 있는 제도다.

베트남에 이어 필리핀, 인도네시아 관광객까지 들어올 예정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과 함께 관광

객 이탈 방지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역할 분담에 따라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는 입국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 입국을 방지하고, 전남도는 준법 도우미를 운영해 단체관광객 출입국 수속 지원과 이탈 방지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베트남 관광객 입국은 무사증 제도 시행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첫 성과이자 마중물”이라며 “국가별 맞춤형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최악 가뭄... '영산강 4지구 개발' 더딘 걸음

▶1면에서 계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준공 시기가 대폭 늦춰지다 보니 급수대상지 무안, 함평, 신안, 영광 4개군 중 신안과 영광의 급수면적은 ‘0’으로 전무한 실정이다”며 “정부에 수차례 지원을 촉구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관계자는 “사계절 영농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첨단기능을 갖춘 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각별한 애정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그만큼 절실하다”며 “예산을 확보한 뒤 송수관로를 설치해 2~3년 후부터는 신안군 일부 도서지역에도 영산강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저지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매가전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시대 동반자
본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그린궁 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NAVER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전남매일 영종 일자리 창출 캠페인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